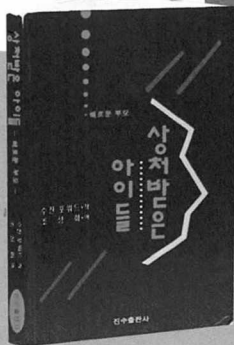


상처 입은 어린 영혼들과의 뜨거운 만남

영화감독 임상수씨가
뽑은 수잔 포워드의
《상처받은 아이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지은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아이들을 상담 치료한 사례를 담은 연구서입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영화감독 임상수씨(38)는 요즘 가솔 청소년의 세계를 그린 영화 <눈물>을 만드느라 한창 바쁘다. 그는 이 작품을 4년 전부터 구상, 준비해왔다. 청소년 관련 서적을 탐독하고, 가솔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 그 외중에 만난 책이 바로 《상처받은 아이들》(수잔 포워드 지음, 조성희 옮김, 진수출판사)이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지은이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아이들을 상담 치료한 사례를 담은 연구서입니다. 읽다 보면 저절로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이 책에는 의사를 찾아온 환자들이 자신의 ‘병원’(病原)이 어릴 때 가족에게 받은 상처임을 인정하고, 상처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부모 혹은 가족의 처사는 무조건 옳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가족에게 상처받고, 그 때문에 성장해서도 괴로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와 가족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크고 오랫동안 남는 법이죠.”

그는 무엇보다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는 이 책의 원제 ‘Toxic Parents(해로운 부모)’가 번역되면서 부제로 바뀐 것을 단적인 사례로 지적한다.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사례지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상처의 진상부터 살펴야 하는데, 도대체 보려고 하질 않아요. 제 영화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입은 상처의 진상부터 보여줄 생각입니다.”

그는 <눈물>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다. 책에는 형형색색의 포스트잇이 붙어 있고, 곳곳에 처진 파란색 밑줄 옆에 그가 덧붙인 말들이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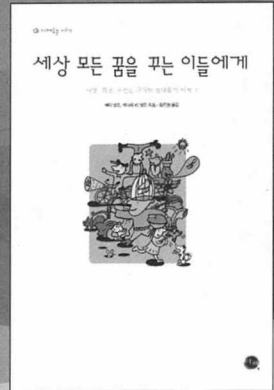
이 책은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단골’ 선물이기도 하다. 청소년뿐 아니라, 친구들과 40~50대 선배들에게도 건네준다. 상처받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술작품은 그런 상처를 극복하려는 하나의 몸부림, 혹은 상처에 대한 위로라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지금 <눈물>에 빠져 있다. 또다른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 김정은 기자

도서출판 이채에서 여러분께 꿈을 팔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꿈을 꾸는 이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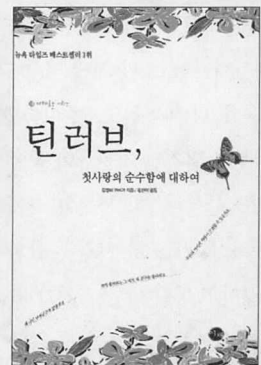
값 8,000원

이 책에 실린 아이들의 솔직한 자기고백은 끝없는 킁킁한 터널을 어렵사리 지나서 십대에게 자그마한 길잡이등불이 되어줄 만하다.

강지원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10대의 자유, 10대의 사랑

틴러브, 첫사랑의 순수함에 대하여



값 8,000원



tel / 02)511-1891, 512-1891
fax / 02)511-1244
e-mail / min7gi@chollian.net